

2011.07.04 미래정책연구실

□ 일본, 72년만에 쌀 선물거래 재개할 듯

1. FINANCIAL TIMES(2011.06.24) 주요 내용

- 일본은 72년만에 쌀 선물거래를 재개할 계획임.
 - 일본농림수산성은 도쿄곡물거래소(Tokyo Grain Exchange)와 칸사이상품거래소(Kansai Commodities Exchange)에서 2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본격적인 상장신청을 받을 계획임.
- 일본은 지난 1930년 세계 최초 선물거래소인 오사카의 도지마 쌀시장(Dojima Rice Market)이 문을 연 후, 1939년까지 쌀 선물거래가 이뤄짐.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으로 쌀 수급을 통제하기 위해 시장이 폐쇄됨.
- 칸사이상품거래소의 가쓰오 스즈키(Katsuo Suzuki)는 “쌀 선물상장은 쌀 가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”라고 주장함. 또한 선임부농업장관인 누보 쓰쓰이(Nobutaka Tsutsui)는 “쌀 선물상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”고 주장함.
- 반면 일본 농업협동조합중앙회(Central Union of Agricultural Co-operatives)는 쌀 선물거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함.
 - 지난 3월에 발생하였던 지진, 쓰나미로 인한 피해와 현재 높은 식품가격으로 쌀 선물거래에 대해 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.
 - 또한 쌀 선물거래는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농업정책을 약화시킬 것이며, 지역 브랜드에 중점을 두는 일본의 쌀 산업 현실과 맞지 않음.
- 칸사이상품거래소와 도쿄곡물거래소는 쌀 선물거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함. 도쿄곡물거래소는 빠르면 7월에 쌀 선물거래가 도입될 것이라고 주장함.

2. 일본농업신문(2011.06.25, 28) 주요 내용

- 현재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을 지난 28일에 인가할 방침이었지만 연기하기로 결정함.
 - 이는 JA그룹(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)과 자민당의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에 대한 반대와 이바라기현의 불인가 요청 때문임.
 - 쌀 선물 시험상장여부에 대한 결정기한은 7월 25일까지로 약 한달 정도가 남아 있음.
- 농림수산성은 당과의 조정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임.

<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에 대한 견해>

	J A 그룹	자민당	농림수산성
쌀 생산·유통에 미치는 영향	2005년도에 불인가판정(생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과의 적합성을 유지할 수 없다)과 현재와는 별반 차이가 없음.	선물거래의 투기적 성격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, 쌀 생산현장과 유통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. 일본의 독자적인 다양한 쌀 생산 및 유통에 맞지 않음.	호별소득보상제도 도입에 따라, 가격정책에서 소득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함. 쌀 수급조정은 메리트 조치의 대대적 확대에 따라, 생산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선택제로 전환함.
쌀 정책과의 적합성	시장원리를 전제로 한 선물거래는 쌀 수급과 가격안정을 취지로 한 정책 및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모순됨.	선물거래는 국가가 쌀 수급과 가격안정에 책임을 진 식량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. 호별소득보상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선물거래실시의 근거가 되지 못함.	쌀 거래의 객관적 지표가격이 존재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, 선물시장은 생산자에 거래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공한다. 호별소득보상제도는 일률적인 단가로 지불되어지기 때문에 선물시장은 생산자에게 가격 변동의 위험성을 경감시킴.
그 외 논점	동일본대지진 피해복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함.	대지진피해와 원전사고로 불만에 떨고 있는 농업종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.	투기자금에 따른 과도한 가격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장과 국가가 한 사람 당 거래량 및 시세 폭을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함. 재해지역 복구는 중요과제이나 쌀 선물 시험상장에 대한 찬반은 법률의 인기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가의 자유재량이 아님.
	쌀이 투기대상이 되어 쌀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함.	정부의 설명이 없고,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음.	

□ 미국, 홍수로 인한 파종시기 늦어져 곡물가격 압박

1. FINANCIAL TIMES(2011.06.27) 주요 내용

- 미국의 주요 곡물생산지역은 홍수로 인해 옥수수, 밀 등 주요 곡물의 파종 시기를 늦추고 있음.
 - 옥수수, 밀은 5~6월에 파종을 시작해야 하지만 지난 19일 기준으로 파종을 마무리한 농가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침.
- 미국의 주요 곡창지대인 **미시시피와 미주리 강유역의 홍수**로 인해 주요 옥수수 재배지역인 **오하이오와 인디애나주는 옥수수 파종시기를 늦추고 있음.**
 - 관계자들은 파종시기가 늦어질 경우 수확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곡물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함.
- 카길(Cargill)의 CEO인 그렉 페이지(Greg Page)는 “이번 홍수로 인해 **250만 에이커의 옥수수 경작지가 유실되었다**”고 주장함.
 - 홍수로 인한 경작지 감소와 늦어지는 파종시기는 에탄올 산업으로 곡물 소비 및 신흥국의 수요 증가와 옥수수 재고량의 최저수준인 상황과 맞물려 옥수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함.
- 주요 밀 생산지인 **노스다코타와 몬타나주** 등 평년대비 많은 비가 내려 밀 파종에 심각한 영향을 줌.
 - 올해 들어 밀 파종은 47% 감소하여 밀 경작지는 135만 5,000에이커로 이는 1959년 이후 최저 수준임.
- 지난달 노스다코타의 밀 가격은 52% 증가하여 미국 파스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.
 - 지난달 슈퍼마켓에서 파스타 가격은 파운드당 1.231달러를 기록하여 1980년 이후 최고 수준임.